



✓ 진로교육 바로 알기

##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 [4] 진로체험 길라잡이

대학 진학 혹은 취업 등의 진로계획을 세워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에 앞서 이를 도와주는 진로체험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데, **수많은 체험활동 중에서 자녀에게 적합한 체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험활동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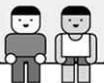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은 대개 관공서나 기업 등을 방문하여 직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과 대학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과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나 직업인·전문인을 통해 직업에 대해 배우는 **간접적인 방법**과 **모의 일터에서 직업체험**을 하거나 **직업인 인터뷰**를 하며 기초적인 업무와 태도를 배우는 방법,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을 견학**하는 방법, 단기간 특정 장소에서 다양한 진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로캠프**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별 특성을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적합한 체험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체험프로그램을 유형별·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꿈길'**과 모바일 앱 **'맘에쏙진로'**, 그리고 각 지자체의 **진로·진학정보센터나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자녀의 체험활동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 쓰는 순서
1.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2. 진로체험을 통한 미래설계
3. 진로체험과 학부모의 역할
4. 진로체험 길라잡이

✓ 진로상담, 똑..똑..



## 전문학교에 보내도 될까요?

**Q** 올해 고3인 저희 아이는 IT 관련 학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내신, 수능을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갈 수 있는 IT직업전문학교가 있다며 거길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막상 전문학교를 간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전문학교와 전문대학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A** 전문학교와 전문대학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학교의 설립 주체나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전문대학은 교육부 소속의 고등교육과정**인데 비해 **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러나 전문학교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교의 경우 수능이나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 또는 면접과 잠재능력검사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규 학위과정에 비해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진학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 전문학교의 규모, 교수진, 교육내용 편성, 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교육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운영되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학 결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농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농업 시대를 만들어가요” - 조해석(청운표고농원 대표)

■ 어릴 적 꿈이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해석 씨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수입이 좋았다. 때문에 농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자란 해석 씨는 농사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부모님이 원하는 건축학과로 진학하게 된 해석 씨는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농촌드라마 <전원일기>를 보다가 '농수산대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자신이 포기했던 농업에 대한 꿈이 되살아난 해석 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정했고, 그런 그를 보며 부모님도 끝까지 반대하시지는 못했다. 결국 해석 씨는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농수산대학교에 다시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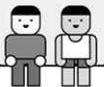
■ 농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해석 씨가 입학한 농수산대학교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며, 확고한 영농 의지를 입학의 기본 요건으로 평가한다. 학과는 식량작물학과, 화훼학과, 대가축학과, 수산양식학과, 산림조경학과 등 12개가 있으며, 해석 씨는 그중 버섯학과를 전공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해석 씨는 1학년 때는 이론을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선진농장에 가서 실습을 했다. 3학년 때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창업 논문을 썼는데, 일종의 창업계획서로 자기가 운영할 농장의 영농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배운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농장을 운영하게 된다.

■ 힘들지만 농사일에서 삶에 대한 에너지를 느껴요

해석 씨는 농업을 시작한 초기 몇 년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면서 일에 매달렸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고르는 것부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농사가 잘되고 농산물이 잘 팔리면 그 재미에 푹 빠져서 힘든 줄도 모르고 더욱 매진했다. 버섯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느낀 기쁨은 상상 그 이상이었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사일은 삶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했다. 해석 씨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특허도 여러 건을 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버섯 농업과 관련한 성과도 이루었다. 앞으로 그는 농산업과 관련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의 꿈과 만나다-창업분야(2013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진로소식



전국의 안전교육 체험관

안전교육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는 안전교육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재난 및 재해 체험, 소방 체험,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체험관은 월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됩니다. 각 체험관마다 상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아래 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름	사이트	문의처
서울	광나루 안전체험관	safe119.seoul.go.kr/gwangnaru/mainPage.do	02-2049-4061
	전쟁기념관 비상대비체험관	www.warmemo.or.kr	070-4109-3225
	보라매 안전체험관	safe119.seoul.go.kr/boramea/mainPage.do	02-2027-4100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	https://www.1365.go.kr	042-609-6884
대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safe119.daegu.go.kr	053-980-7777
부산	스포원파크 재난안전체험관	www.spo1.or.kr/park/park_06_03.do	051-550-1591
충북	충북도민안전체험관	safe.cb119.net	043-234-2387 043-110-4953~4
충남	안전체험센터	safecenter.ndti.go.kr	041-560-0058
전북	전북 119안전체험관	safe119.sobang.kr	063-290-5675~6
강원	365세이프타운	www.365safetown.com	033-550-3101~5